

한길로 수학 짝기 특강

3, 4등급이 수능 1,2 등급이 되는 비법서

본 짭툑은 2~4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짭툑 효과가 제일 좋은 등급은 3등급 학생이며 2등급 학생의 경우 혹은 수능날 1~15번까지 중 어려운 문제가 나와 2문제 이하를 짭툑어야 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여기서 2등급은 평가원 6,9월을 포함함은 물론 고2후반 부터 고3 4모 7모 등을 포함한 정말 쑤 2등급을 말한다. 너가 왔다리갔다리 2~3등급이면 그냥 수능에서는 3등급인거다.

본 짭툑은 필자가 어떠한 참고 문헌 없이 스스로 개발해낸 짭툑이다. 친구들에게 유포하지 말고 이걸 보는 독자 자신만 열심히 체화 시키고 공부하길 바란다.

- 수능이 1달 남았다면 : 일부 고등학교는 2학기 중간고사를 수능 2.5주 전에 본다. 자신이 일반고의 1점대 내신이거나 자사고 혹은 외고 등의 특목고에 진학중이라면 수시 (재,삼)반수는 거의 필수적이니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안챙기면 후회할 수 도 있다.
- (수시러들에게) : 작년(2023)까지는 자소서까지 있어 방학부터 9월까지 수능 공부를 거의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2024 수능 부터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능이 1달 남은 시점에서 최저는 못 맞출 것 같거나 정시 파이터지만 수학으로 눈 앞에 D-365+n이 그려지는 3등급의 학생들의 인생 역전을 위해 만들었다. (수학은 정시에서 표점, 등급이 아주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1. 킬러는 버린다. (9월 말~10월 이후)

현 시점부터는 21,22 공통과 29,30 선택은 너의 인생에서 지워라. 9월 말에서 10월이 되었는데 3등급인 너가 손달 문제 아니다. 너는 1~10번, 16~20번을 안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킬러를 공부할 시간에 11번~15번 준킬러를 풀기위해 노력해라. 대신 수능날 이 주관식을 어떤 숫자로 채울 것인지는 생각해둬라. 나의 경우 13과 26을 번갈아 가며 고3 3월 모고부터 수능까지 밀었다. (결국 수능 날 21번 정답 13, 미적 29번 정답 26으로 어떻게 짭툑어도 성공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2가지 중 하나인 26으로 4문제를 밀었는데 내가 짭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어서 이다. 만약 공통을 26으로 밀고 선택을 13으로 밀었으면 나는 킬러 4개를 모두 틀렸을 것이다. **짭툑을 때의 기본 마인드는 하나라도 맞는다**로 가야한다. 2마리 이상의 토끼를 잡다가 나락으로 간다.

자신만의 수를 끝까지 밀고 수능날 뵙받는 수가 있다면 밀어도 좋다. 내가 13을 밀었던 이유는 13이 고1부터 고3까지 모의고사의 답으로 종종 등장하는 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걸 보고 자기 수능에서 13을 아무 이유 없이 짭툑지는 말기를...

2. 1~10번, 16~20번, 23~26번을 틀린다면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 너가 이 구간을 틀리는 순간 너는 3도 아닌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짭툑은 의미를 상실한다. 이 구간을 풀기위해서 수능이 1달~2달 남은 시점에서 해야하는 것은 **시중 실모이다**.

나는 현우진 킬링캠프 1,2회차를 풀었다. 시즌 2회차부터 풀었고 당시 수능이 거의 3주 남은 시점이라 1회차는 거의 몇 개 못 풀고 들어갔다. 시간 정확히 측정하고 풀어야한다. 현우진 실모는 원래 조금 어려워서 2023 수능 1등급 받은 친구도 현우진

실모에서 7~10번 에서도 순간 막히는 경우 있었으니까 걱정마라. (그래야 수능 날 안
쫓아든다, 퀄리티도 가장 좋다)

그 숨이 턱턱 막히는 실모를 체험해야지 수능 날도 막혔을 때 눈물이 나고 부모님
생각나는 일이 없다. **현우진 실모에서도 킬러는 버린다.** 대신 15번까지는 다
틀리더라도 인강을 듣던 학원 선생님께 질문을 하던 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래야 수능날 울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2~3일 1실모 하는 게 좋다. (9모까지
망했을 경우 더 그렇다)

3. 멘탈 잡아라

남들이 수능 전날 어떤 수학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훌쩍형 배정 받자 마자
스카가서 작년, 재작년 69수능 답지 패턴 분석을 했다. 나도 12년간 정말 많은 학원을
다녀봤지만 자신의 수학 실력은 11월 전에 끝난다고 보면 된다. (수학 기초체력)

어차피 1등급 안정인 애들은 이걸 볼 이유도 없고 1~2 간당간당이면 지금 막판 킬러
문제 단련 중일 것이기에 이걸 보고 있는 너는 3,4등급 일 가능성이 많다.

버릴 걸 확실히 버려야한다. 명심해라. 수능직전 학원은 너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 끊으라는게 아니다. 10월 이후 부터는 너 혼자 페이스대로 가야한다. 너보다
등급 높은 애들이랑 강의 들으면서 너가 수능날 손도 못댈 킬러 문제를 설명듣는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장 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다. 실모를 풀고 짝퍽을 통해 익힌 스킬을
체화해라.

**나는 2023 수능에서 미적을 선택했고 인생 최고점을 찍었음은 물론 9월 모의고사
보다 2등급을 올렸다. 가채점표를 안써서 수능성적표 받고 놀랐다. 과외 선생님도
나도 수능에서 점수가 올라갈 줄은 몰랐지. 그러니 믿어봐도 좋다.**

평가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해라. 수능은 표본이 비교적 많은 시험이기에
분석하기 용이하다. 객관식의 수는 한정되어있다. 킬러를 하나 맞추는 것과 일반 4점
문제를 맞추어서 얻는 점수는 같다. (이걸 보는 너가 표편과 백분위를 운운할 건 아닌
것 같다.)

계절마다 피는 꽃은 다르다. 너의 계절은
수능날이다. 그 시절 나도 수 없이 느꼈던 감정이다.
아무리 모의고사를 풀어도 내가 될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수능 전날까지도 말이다. 애초에 내가
그 점수를 받을 거라는 예상 자체를 못했기에 수능
전 내 걱정은 설마 10번까지 풀면서 부터 막히는 거
아니야? 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저 11월까지 묵묵하게
노력만 해라. 너는 그날 반드시 만개 할 것이다.

수능 찍기 실전 행동 전략

수능 시험지를 받자마자 일단 1~10번까지 풀어라. 막혀도 상관 없다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풀어라. (이후 쉬운 문제인 16~20과 선택 초반 부분을 풀고 11~15를 푸는 전략을 써도 좋다.)

일단 11~15번을 스캔하고 하나씩 손은 대야한다. 15는 시간이 없거나 풀어서 못 풀었더라도 11~13번 중에 하나는 꼭 풀어야한다. 답을 확신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이다. 3등급이면 1개는 풀 수 있을거다. <이 찍특은 2023 대수능 수학을 문제와 함께 보라>

공통 과목						공통 과목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⑤	2	12	②	4	1	⑤	2	12	④	4
2	④	2	13	③	4	2	④	2	13	③	4
3	①	3	14	①	4	3	①	3	14	①	4
4	③	3	15	⑤	4	4	③	3	15	⑤	4
5	⑤	3	16	10	3	5	⑤	3	16	10	3
6	②	3	17	15	3	6	②	3	17	15	3
7	④	3	18	22	3	7	④	3	18	22	3
8	④	3	19	7	3	8	②	3	19	7	3
9	③	4	20	17	4	9	③	4	20	17	4
10	④	4	21	33	4	10	④	4	21	33	4
11	①	4	22	13	4	11	①	4	22	13	4

(2023 수학 홀수형)

(짝수형)

11부터 15번까지를 보라. 이 부분 부터 10번 이전보다 난이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대부분(5등급 이하)의 사람들이 못 풀 경우 하나의 번호로 찍는 다는 것을 평가원은 안다. 근데 그 번호가 다 맞으면 큰일나겠지? 그래서 평가원은 같은 번호를 보통 연달아서 안 낸다.